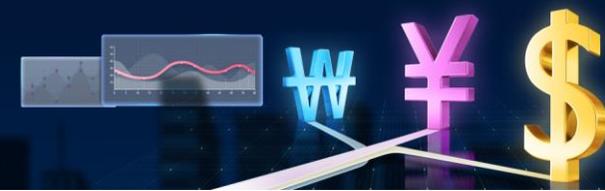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2023.3.31)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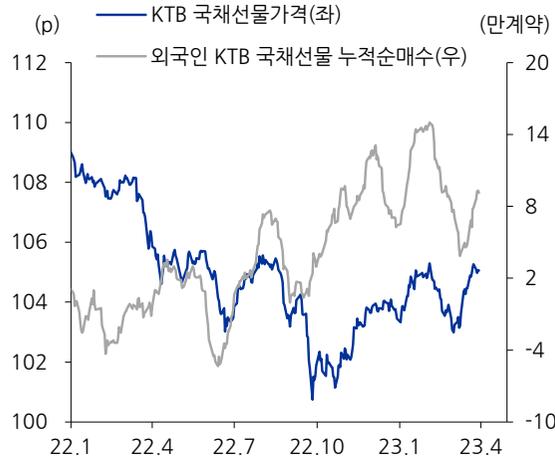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76_jhoonlee@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 | 3/30일 | 1D | 1W | YTD | |
|-------|------------------|--------|-------|-------|-------|
| 국내 채권 | 한국 국고채 3년물 | 3.240% | -0.9 | 3.4 | -48.2 |
| | 한국 국고채 10년물 | 3.305% | 2.5 | 3.9 | -42.5 |
| |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 6.5 | 3.1 | 6.0 | 0.8 |
| | 3년 국채 선물(KTB) | 105.06 | -1.0 | -8.0 | 161 |
| | 10년 국채 선물(LKTb) | 114.30 | -37.0 | -39.0 | 435 |
| 해외 채권 | 미국채 2년물 | 4.130% | 7.4 | 28.8 | -29.0 |
| | 미국채 10년물 | 3.551% | -2.1 | 13.1 | -32.7 |
| |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 -57.9 | -48.4 | -42.1 | -54.2 |
| | 독일국채 10년물 | 2.369% | 4.7 | 17.9 | -19.6 |
| | 호주국채 10년물 | 3.355% | 7.1 | 6.5 | -6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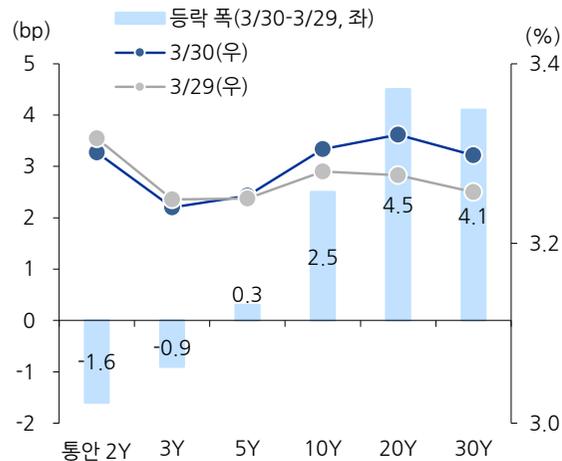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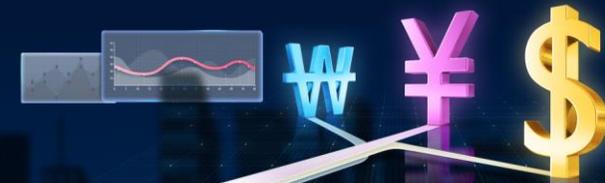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커브 스티프닝 마감. 단기물 소폭 내렸지만 장기물 위주 상승세 확인됨.
- 금리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편. 전일 장 후반 강세를 일부 되돌리면서 상승 출발한 금리는 은행 리스크 완화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 금리 상승 등을 반영하면서 장기물 중심의 상승폭을 유지.
- 한편, 3월 조기 편입 기대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WGBI 편입은 불발됐음. 관찰대상국 유지 결정 발표되면서 9월 편입 여부에 관심.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 은행 리스크 점차 진정되면서 금융시장 안정 되찾아가는 중.
- 미국 PCE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목도 올라가고 있음. 일부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발언과 함께 5월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갈리면서 변동성은 내재되어 있음.
- 금일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및 일본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예정. 독일과 프랑스, EU 등 유럽권 CPI 등 주요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며 밤 9시 30분 미국 2월 PCE도 예정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

자료 출처: 연함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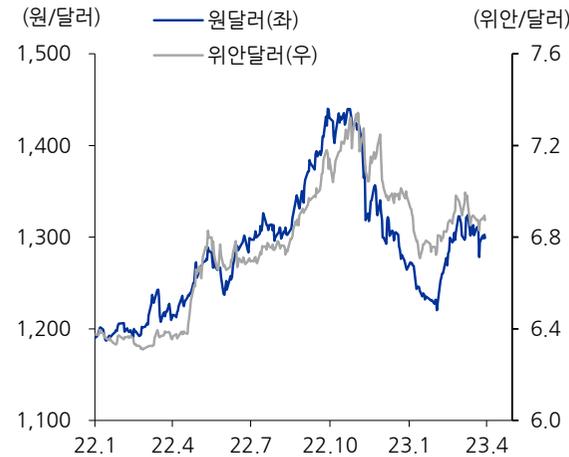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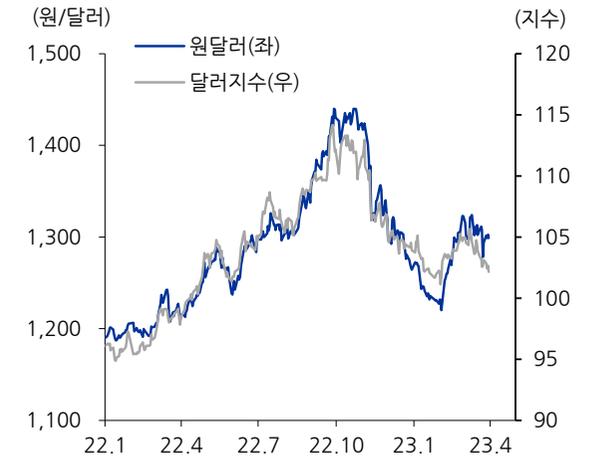
(단위: %, \$)

| | 3/30일 | 1D | 1W | YTD |
|-------------|----------|-------|-------|-------|
| 원/달러 | 1,299.00 | -0.3% | 1.6% | 2.7% |
| 달러지수 | 102.17 | -0.5% | -0.4% | -1.3% |
| 달러/유로 | 1.091 | 0.6% | 0.7% | 1.9% |
| 환율 | | | | |
| 위안/달러(역외) | 6.87 | -0.3% | 0.7% | -0.7% |
| 엔/달러 | 132.70 | -0.1% | 1.4% | 1.1% |
| 달러/파운드 | 1.239 | 0.6% | 0.8% | 2.5% |
| 헤알/달러 | 5.09 | -0.8% | -3.8% | -3.6% |
| 상품 | | | | |
| WTI 근월물(\$) | 74.37 | 1.9% | 6.3% | -7.3% |
| 금 현물(\$) | 1,980.26 | 0.8% | -0.6% | 8.6% |
| 구리 3개월물(\$) | 9,001.00 | 0.0% | -0.3% | 7.5% |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연준 총 대출 지난주 대비 감소



원달러 환율 동향

- 전일 원달러 환율은 -3.70원 하락한 1,299.0원에 마감.
- 간밤 달러 약세 반영해 +7.50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오전 중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 지속. 오전 중 약세를 보이던 역외 위안화 환율이 오후 들어 강세 전환하면서 원달러도 동반 하락.
- 오후 들어 분기말 네고 물량도 상당량 출회되면서 1,300원을 하회하며 마감. 국내증시도 상승했으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600억원 가량 순매수했으나 코스닥에서는 1,200억원 가량 순매도.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기대에 약세. 간밤 공개된 연준의 은행 대출 금액은 3,426억 달러로 지난주 3,541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 재할인 대출은 감소한 반면 BTFP 대출은 증가.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약간의 추가 긴축이 있는 뒤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언급.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향후 전망이 불확실해 연준이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금일 미국 2월 PCE 물가 및 유로존 3월 CPI 발표 예정. 간밤 공개된 지난해 4분기 Core PCE 최종치는 +4.4%(Q, 연율) 상승해 잠정치 +4.3% 대비 상향. 유로존은 헤드라인 물가는 둔화되나 Core 물가는 상승폭 확대 예상.